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개관 10주년 기념
—— 페스티벌 ——

IBK챔버홀 개관 10주년에 즈음하여

2011년 10월 5일, 예술의전당 음악당 동쪽 출입구 바로 안쪽에 새로운 공연장이 문을 열었다. 기존의 콘서트홀, 리사이틀홀에 이은 음악당의 세 번째 공연장, 'IBK챔버홀'이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 것이다. 뜻 깊은 개관 기념 공연의 주인공은 소프라노 신영옥으로, 그녀는 여자경이 지휘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 비발디, 벨리니 등을 들려주었다. 이후 2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통해서 IBK챔버홀은 그 존재 가치를 당당히 입증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IBK챔버홀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내악 공연장으로 우뚝 서 있다.

최적의 음향과 적절한 규모

IBK챔버홀의 개관을 전후하여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종체임버홀, 금호아트홀, 호암아트홀, 영산아트홀 등 이미 서울 소재 실내악 공연장이 적지 않았다는 점, 수준급 대형 공연장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존의 리허설룸 공간을 용도 변경하여 설치한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2000년대 이후 국내 클래식 음악 공연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을 이유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주요 실내악 공연장들은 대개 강북에 치우쳐 있었고, 강남에 위치한 LG아트센터는 클래식 음악보다는 연극과 뮤지컬 공연 쪽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호암아트홀이 그해 연말 폐관을 앞두고 있었기에 작게는 독주 리사이틀부터 크게는 체임버오케스트라 공연까지 수용 가능한 중규모 공연장의 신설이 긴요하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IBK챔버홀이 문을 열었을 때, 관객들은 왜 새로운 공연장이 필요했는지 금세 납득하게 되었다.

IBK챔버홀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음향과 적절한 규모'를 모토로 내세웠다. 상기한 논란을 의식하기 이전에 '클래식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서 당연히 지향해야 할 덕목이었다. 그에 따라 총예산 80억 원 중 음향 부문에만 20억 원이 투입되었고, 건축 음향설계·컨설팅 전문가인 김남준 박사의 진두지휘 아래 1.8초 안팎의 잔향 시간을 지닌 600석 규모의 연주홀로 탄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것처럼 공들인 음향에 관객들은 호평으로 화답했다. 벽체에 석고와 세라믹이 혼합된 소재를 사용한 홀은 담백하면서도 메마르지 않은 음색과 울림을 빚어냈고, 덕분에 무대 위 연주자들이 내는 소리는 객석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고 섬세하게 전달되었다. 심지어 1층 객석 뒤쪽이나 2층에서도 소리의 결과 긴장도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다. 이런 음향은 연주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연주를 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음악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열정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런 연주를 생생하게 즐기고 한층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 공연계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다

개관 이래 IBK챔버홀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 클래식 음악 공연계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첫째는 실내악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인식 개선과 만족도 증대의 측면이다. 음향적으로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아온 리사이틀홀이나 (독주나 실내악 공연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규모가 큰 콘서트홀에서의 공연에 비해 IBK챔버홀에서의 공연은 실내악에 대한 관객들의 친밀도와 이해도를 뚜렷이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아마 IBK챔버홀을 통해서 실내악 고유의 내밀하고도 풍부한 매력에 새로이 눈을 뜨거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연주를 보다 살갑게 만끽하는 즐거움을 경험한 관객이 적지 않으리라.

둘째는 적극적인 기획을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공연 형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기회 확대의 측면이다. IBK챔버홀의 개관은 한동안 위축되어 있던 예술의전당의 공연 기획 역량이 다시금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했고, 그 결과로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의 진솔한 대화와 아름다운 연주가 결합된 <손범수, 진양혜의 Talk & Concert>,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최고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예술의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 해설이 있는 실내악 무대 <아티스트 라운지> 등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시리즈 공연들이 시도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것이다.

셋째는 국내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시험 무대로서 기능한 측면이다. 그들 중에는 국제무대에서의 지명도가 다소 낮아서 콘서트홀 무대에 서기에는 (주로 관객 동원의 측면에서)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론 국제적인 지명도에 비해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를테면 차이콥스키콩쿠르 우승 직후에 내한했던 러시아의 젊은 피아니스트 다닐 트리포노프와 오스트리아의 거장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가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였다. 나는 아직도 트리포노프의 리스트 소나타와 부흐빈더의 베토벤 소나타를 불과 몇 미터 앞에서, 그것도 IBK챔버홀의 생생한 음향 속에서 직관할 수 있었던 그 행운의 기억을 떠올리며 전율하곤 한다. 아울러 독일 첼리스트 다니엘 뮐러 쇼트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공연, 러시아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코롤리오프 부부의 듀오 리사이틀 등도 IBK챔버홀이 나에게 선사한 귀중한 추억이다.

실내악계의 미래를 위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IBK챔버홀은 국내 클래식 음악 공연계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더구나 근래 몇 년 사이, 광화문 주변에서의 잦은 시위와 집회로 세종체임버홀이 고전하고 금호아트홀이 모기업 사정으로 광화문을 떠나는 등 실내악계에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 속에서 IBK챔버홀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듯하다. 아마 이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당분간은 IBK챔버홀이 국내 실내악 공연계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다만 그런 주도권이 지나치게 독점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일은 경계해야 하리라. 국내 공연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공연장만의 번성보다는 여러 공연장들의 조화와 상생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의전당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IBK챔버홀 개관 10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예정하고 있다. 아무쪼록 그 자리가 그저 축하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실내악 공연계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화합과 모색의 향연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글 황창원(음악 칼럼니스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체험과 상상력, 감동을 중시하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음악에서 보다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끼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위 글은 예술의전당 공식 포스트에서 발행된 기사입니다.

PROGRAM

SAC챔버앙상블 11.3 수 7:30PM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 S. Bach
1685-1750
원곡 손일훈 (Arr. Il Hoon Son)

트리오 소나타 E♭장조 BWV 525
Trio Sonata in E♭ major, BWV 525
I. *Allegro moderato*
II. *Adagio*
III. *Allegro* Vn. 박규민 W. 이경준 D. 심규호

코랄 전주곡 '저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BWV 668
Chorale prelude 'Vor deinen Thron tret' ich hiermit', BWV 668
Vn. 박규민 W. 이경준 D. 심규호 Trp. 최문규

손일훈
Il Hoon Son
1990-

예술의전당을 위한 팡파르 예술의전당 위촉곡(세계 초연)
Fanfare for Seoul Arts Center Commissioned by SAC(World Premiere)
Brass Ensemble 최문규 알현호 장대진 조규형

스반테 헨리슨
S. Henryson
1963-

오프 피스트
Off Pist D. 심규호 W. 이경준

마크 쉼머
M. Summer
1958-

줄리-오
Julie-O D. 심규호 W. 이경준

프란츠 슈베르트-프란츠 리스트
F. Schubert - F. Liszt
1797-1828 1811-1866

피아노 독주로 편곡한 가곡 작품들
Lieder transcriptions Tr. 박종래

카미유 생상스
C. Saint-Saëns
1835-1921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Introduction and Rondo Capriccioso Vn. 박규민 Tr. 박종래

휴식 INTERMISSION

다리우스 미요
D. Milhaud
1892-1974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Op.157b
Suite for Violin, Clarinet and Piano, Op.157b
Vn. 박규민 D. 심규호 Tr. 박종래

루트비히 판 베토벤
L. v. Beethoven
1770-1827

피아노 삼중주 E♭장조 Op.1, No.1
Piano Trio in E♭ major, Op.1 No.1
I. *Allegro*
II. *Adagio cantabile*
III. *Scherzo : Allegro assai*
IV. *Finale : Presto* Vn. 박규민 W. 이경준 Tr. 박종래

* 프로그램과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GRAM NOTE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 트리오는나타 E♭장조 BWV 525

J. S. Bach | Trio Sonata in E♭ major, BWV 525

바로크 시대의 트리오는나타는 세 개의 독립된 성부로 이루어진 실내악곡이다. 성부는 세 개지만 보통 두 개의 선율악기와 한 개의 저음악기, 그리고 즉흥적으로 화음을 연주하는 화성악기를 추가하여 많은 작곡가들이 트리오는나타를 남겼는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실내악 형식의 소나타를 혼자서도 연주할 수 있도록 오르간으로 작곡했다. 오르간은 기본적으로 손 건반을 지칭하는 '매뉴얼'이 두 개, 발 건반을 지칭하는 '페달'이 한 개 있기 때문에 독립된 세 개의 성부를 연주하기에 이상적인 악기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자신의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가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여 그에게 오르간을 가르치기 위해 이와 같은 트리오는나타를 여섯 개 만들었으며, 1727년부터 1732년 사이 라이프치히에서 작곡된 이 작품들은 모든 오르간 연주자에게 평생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본이 되었다. 이탈리아 바로크 스타일이 돋보이며 간결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여섯 개의 소나타로 일찍이 음악적 소양을 다진 빌헬름 프리데만은 결국 20대 초반에 드레스덴의 성소피아성당 상주 오르가니스트로 취임하게 되었으니, 이 작품은 예술성은 물론이고 한생의 목적도 달성한 셈이다. 오늘 연주되는 BWV 525는 그 중에서 첫 번째 곡이며, 바흐가 1인 3역의 오르간으로 엮은 소나타를 다시 세 명의 연주자, 선율악기인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그리고 저음악기의 첼로로 풀어서 연주한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 코랄 전주곡 '저는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BWV 668

J. S. Bach | Chorale prelude 'Vor deinen Thron tret' ich hiermit', BWV 668

조용하고 차분한 전주로 시작하는 이 코랄 전주곡은 한 평생을 음악과 신앙에 헌신하며 살았던 바흐의 '임종 작품'으로 알려진 오르간곡이다. 코랄 전주곡은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단선율로 작곡된 '정선율'을 중심으로 대선율과 반주가 더해져 만들어진 기악곡이다. 바흐가 말년에 자신의 대위법적 기량을 총동원한 대작 <푸가의 기법> BWV 1050을 작업할 때에 그는 당뇨병과 백내장으로 매우 고생하고 있었다. 영국의 돌팔이 의사 존 테일러에게 비상식적인 수술을 두 차례나 받고 시력을 잃은 바흐는 — 음악사에서 아주 끔찍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사람은 후에 헨델의 시력도 잃게 만든다 — 그의 사위의 도움을 받으며 수술로 작곡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급격히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자신이 <푸가의 기법>을 완성시키지 못할 것을 짐작한 그는 미완성에 대한 아쉬움과 보상으로 이 코랄 전주곡을 마지막으로 작곡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곡은 바흐가 30대에 작곡한 코랄 전주곡 '우리가 길을 잃고 곤경에 처했을 때' BWV 641을 바탕으로 제목을 바꾸고 개정한 것이다.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첼로가 낮은 음역대에서 서로를 모방하며 노래하고, 그 위로 트럼펫이 연주하는 정선율이 등장하는데, 아무런 장식 없이 순수하게 울리는 것이 마치 마음을 정리한 듯 평온해진다.

손일훈 | 예술의전당을 위한 팡파르 예술의전당 위촉곡(세계 초연)

Il Hoon Son | Fanfare for Seoul Arts Center Commissioned by SAC(World Premiere)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군대의 행사에서 위풍당당하게 울리는 음악인 팡파르는 르네상스보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수많은 작곡가들이 관현악곡에 팡파르를 넣었다. 비교적 최근에 작곡된 독립적인 팡파르는 마누엘 데 파야가 1921년에 작곡한 <축제를 위한 팡파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924년에 작곡한 <빈필하모닉을 위한 팡파르>, 레너드 번스타인이 1961년에 작곡한 <케네디 취임을 위한 팡파르>, 그리고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1964년에 작곡한 <링컨센터의 뉴욕주립극장(현재 데이비드 코호 극장)을 위한 팡파르>가 있다. 대부분의 팡파르는 음악의 내용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1분이 안 되는 짧은 길이로 작곡되었다. 오늘 네 대의 트럼펫으로 울려 퍼지는 <예술의전당을 위한 팡파르>는 IBK챔버홀의 개관 1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위촉되었으며, 그동안 이 예술의전당을 오가며 아름다운 음악을 즐겼던 모든 예술인과 청중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아 만들었다.

스반테 헨리슨 | 오프 피스트

S. Henryson | Off Pist

스톡홀름 출생으로 첼리스트와 작곡가로 클래식 음악 활동할 뿐만 아니라 재즈와 록 음악에서 콘트라베이스와 베이스기타 까지 연주하는 만능음악가 헨리슨의 대표적인 실내악곡 <오프 피스트>는 1996년에 작곡되었다. 오프 피스트는 스키 용어로 자연설이 쌓은 그냥 산 같은 곳에서 타는 스키를 말한다. 그의 친구이자 색소폰 연주자인 안데르스 파울손과 함께 알파인 스키에 빠져있던 헨리슨은 “우리는 음악적으로나 스포츠적으로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탐험하고 자신의 테크닉과 범위를 확장시키며 위험을 감수하고 한계를 즐기는 공통관심사가 있다”며, 오프 피스트의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대처해야하는 변수가 많은 그 느낌을 음악으로 담았다. 스웨덴 공영방송국이 위촉한 이 곡은 색소폰 또는 클라리넷과 첼로의 듀엣으로 작곡되어 두 친구에 의해 초연되었다.

마크 썸머 | 줄리-오

M. Summer | Julie-0

첼로는 넓은 음역대와 다양한 음색을 지닌 악기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악기다. 로스앤젤레스의 출신 마크 썸머는 클래식과 재즈, 락 등 장르를 넘나들며 그래미의 클래식/크로스오버 부문에서 두 번이나 수상한 앙상블 ‘터틀 아일랜드 콰르텟 Turtle Island Quartet’의 창단멤버로서 30년을 활동해온 첼리스트이다. 그가 첼로 독주 또는 현악기 앙상블을 위하여 작곡한 음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곡, <줄리-오>는 1988년에 작곡되어 많은 사람들과 첼리스트에게 사랑받고 있다. 다양한 음악 장르와 함께 뜯고, 굽고, 두들기는 주법이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이 곡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와 닿는 대로 즐기는 수밖에!

프란츠 슈베르트-프란츠 리스트 | 피아노 독주로 편곡한 가곡 작품들

F. Schubert - F. Liszt | Lieder transcriptions

프란츠 슈베르트는 살아있을 당시 대중들에게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작품은 거의 출판되지 않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으며, 그의 첫 번째 작품발표회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성공적으로 마친 후 형편이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 그 해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음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공부하던 헝가리의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는 성악가와 함께 슈베르트의 가곡을 연주하며 종종 자신이 편곡한 독주곡을 무대에서 선보였는데, 그 반응은 정말로 대단했다. 1840년 전후로 리스트는 자신의 독주회에서 그의 가곡을 포함한 다른 작품을 편곡해서 연주하며 슈베르트의 음악을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슈베르트가 죽고 난 후 184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작품이 출판되며 비독일어권 나라에도 전해졌는데, 특히 프랑스 지역에서는 가곡보다 리스트의 편곡이 더 인기가 많았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공연에 대한 리뷰에서 함께 연주한 성악가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고, 리스트의 아름다운 음색이 피아노를 노래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슈베르트의 음악을 다시 알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가득하다. 그는 출판업자들로부터 슈베르트의 악보를 전달받아 행진곡, 가곡, 춤곡, 피아노 소나타 등 손가락 번호와 페달, 오류를 교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또는 피아노 독주곡으로 50편이 넘는 편곡 작품을 남겼다. 리스트가 그 당시 새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가곡을 청중에게 즉흥적으로 들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공연에서는 50개가 넘는 편곡 중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지금 본인이 연주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연주한다.

카미유 생상스 |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C. Saint-Saëns | Introduction and Rondo Capriccioso

1859년, 카미유 생상스가 살던 파리에 스페인에서 온 15세의 젊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데 사라사테가 방문했다. 그는 생상스에게 자신을 위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써달라고 했고, 너무나도 기쁘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한 생상스는 1863년에 작곡한 <바이올린협주곡 1번>과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함께 헌정하며 그 약속을 지켰다. 스페인풍의 론도 카프리치오소는 원래 1번 바이올린 협주곡의 마지막 악장으로 고안되었으나, 생상스는 두 작품을 분리하고 독립시키는 통찰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 1867년 4월 4일 작곡가의 지휘와 함께 화려한 독주로 성공적인 초연을 마친 사라사테는 그 뒤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생상스의 작품을 연주했고,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 사라사테를 위하여 작곡한 만큼 스페인 민속음악에서 유래한 부분, 예를 들어 멜로디가 한 음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꾸밈음을 넣는다거나, 비제의 <카르멘>에 나오는 <투우사의 노래>처럼 피아노가 화음을 리드믹하게 연주하는 부분이 있으며, 자유롭고, ‘기분이 들뜨게 환상적으로’라는 뜻의 카프리치오소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광기스러운 테크닉과 아름다운 표정의 노래가 번덕스럽게 등장하는 이탈리아적인 요소도 함께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적인 고풍과 우아함을 잃지 않는 이 곡은 바이올린 독주자의 필수적인 레퍼토리 중 하나가 되었지만 결코 아무 때나 쉽게 꺼낼 수 있는 곡은 아니다.

다리우스 미요 |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Op.157b

D. Milhaud | Suite for Violin, Clarinet and Piano, Op.157b

언제나, 어디서나, 작곡이 가능했으며 프란시스 풀랑크, 제르맹 타유페르, 아르튀르 오네게르 등의 작곡가와 함께 활동한 프랑스의 ‘6인조’ 중 한 명인 다리우스 미요는 교향곡 12편, 오페라 16편, 현악사중주 18편, 영화음악 28편, 협주곡 21편, 발레 음악 17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43편에 달하는 많은 양의 작품을 남겼다. 1936년에 미요는 극작가 장 아누이와 함께 작업했는데 그의 유명한 희곡, 기억상실증에 걸린 1차 세계대전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짐 없는 여행자> 공연에 쓰일 부수 음악을 작곡했다. 작업이 끝나자마자 그 음악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 트리오로 딱딱만 들어낸 모음곡이 바로 이 작품이다. 보통 작품번호의 숫자 뒤에 알파벳이 붙는다면, 같은 내용의 음악이 다른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작품의 경우 157번은 부수 음악 원곡이며, 157b는 오늘 연주하는 실내악 모음곡이다. 첫 번째 ‘서곡’은 브라질풍의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3+3+2 리듬으로 시작하며,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의 듀엣으로 시작하는 ‘디베르티스망’은 피아노가 참여하면서 우아한 몽상곡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놀이’를 뜻하는 세 번째 곡은 빠르고 유쾌한 두 선율악기의 듀엣곡이다. 처음에 들었던 서곡의 분위기를 상기시키며 서로 노래와 반주를 번갈아하는 짧은 모습은 제목과 잘 어울린다. 마지막으로 ‘서주와 피날레’는 대뜸 어둡고 무겁게 시작하고서는, 상송인 듯 재즈인 듯 불루지한 멜로디의 사이로 갑작스런 에너지의 흐름을 여기저기로 분출한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 피아노 삼중주 E^b장조 Op.1, No.1L. v. Beethoven | Piano Trio in E^b major, Op.1 No.1

오늘 연주되는 이 작품이 베토벤이 작곡한 첫 음악일거라 기대한 관객이 있을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6-7세의 나이부터 신동이라 불리며 피아노 독주회와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작곡을 배웠다. 실제로 그가 처음 출판한 작품은 <드레슬러의 행진곡 주제에 의한 아홉 개의 변주곡, WoO 63>으로 지금은 작품번호가 없는 곡목에 분류 되어있으며 1783년에 출판된 7분 길이의 피아노곡이다. 독일의 본에서 태어나 음악교육을 받은 베토벤은 1790년 런던을 여행하려고 본에 들린 요제프 하이든을 만나고 그가 2년 뒤 다시 본에 방문할 때까지 그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작곡한 두 편의 칸타타, 황제 요제프, 레오폴트를 위한 각각의 작품 WoO 87, 88 그리고 그 외의 스케치를 보고 감명을 받은 하이든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다. 1792년,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가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한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영혼을 계승할 후계자'라는 소문과 함께 그의 후원자와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1795년 3월 29일 베토벤은 빈의 부르크극장에서 자신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성공적으로 연주하며 데뷔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작품번호 Opus를 붙인 첫 번째 작품 - 세 개의 피아노 트리오 1-3번, Op.1의 출판을 위해 작업했는데, 그 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연주되는 곡이다. 이곡의 스케치는 베토벤이 본에 살던 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출판의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공을 들었다.

1악장은 생동감 있는 활기찬 소나타 형식으로 깔끔하게 진행하며 마지막 코다 부분까지 그 생동감을 유지하고 있다. 피아노로 시작하는 2악장은 당시의 유행을 알 수 있듯이 모차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보인다. 아름다운 피아노의 멜로디를 이어받은 바이올린의 노래가 끝나면 첼로와 바이올린의 이중창이 이어지는데, 베토벤이 귀족 사회나 후원자를 위하여 쓴 작품에 특히 두드러지는 느린 템포와 풍부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가장 '베토벤스러운' 3악장은 무슨 조성인지, 어떤 박자인지 쉽게 들려주지 않고, 장난을 치며 흥미롭게 진행한다. 이어지는 마지막 악장은 하이든의 영향이 매우 잘 드러나는 유쾌한 주제로 시작한다. 매력적이면서 조마조마한 이 도악의 주제와 리듬은 끝까지 귀를 사로잡아 우리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베토벤의 후원자인 리히노프스키 공작에게 헌정되었고, 1795년 공작의 집에서 초연했다.

알고 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그의 첫 출판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인 1792-93년에 작곡된 그의 관악 8중주나 (이 곡은 1830년에 작품번호 103번으로 출판된다), 바로 직전에 초연한 협주곡 2번도 있는데, 왜 이 피아노 트리오를 택했는지 음악에서 들린다. 당시의 음악적 분위기에 알맞고 모차르트와 하이든, 그리고 본인의 음악이 적절하게 하나로 어우러진 이 작품은 대중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부담스럽지 않았으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첫 출판은 그 해 베토벤의 생활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글 손일훈 작곡가



손일훈

음악감독·작곡가

IL HOON SON

Music Director·Composer

작곡가 손일훈은 서울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작곡가 김성기를 사사하고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작곡가 Cornelis de Bondt와 Jan van de Putte, Rozalie Hirs 그리고 Peter Adriaansz와 함께 석사과정과 최고과정을 마쳤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세련된 감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며, 특히 음악과 게임을 정교하게 접목해 무대 위를 경기장으로 바꿔버리는 그의 "음악적 유희(Musical game series)" 작품들은 새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주목받으며 항상 화제와 함께 세계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작품 "스무 고개" <20 Questions>는 암스테르담 피아노 사중주단(Amsterdam Piano Quartet)이 처음으로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국내에서는 작곡가 본인과 손일음, 문제원, 박종해 피아니스트와 함께 소개되었다. 최근작인 일곱 번째 작품 <Rhythm Bomb>은 네덜란드의 현대음악 연주단체인 뉴앙상블(Het Nieuw Ensemble)이 위촉하고 초연했으며, 앙상블의 고별 연주회에서 관객들이 다시 듣고 싶어 하는 음악으로 선정되어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앙상블 Neo-Fanfare 9x13의 음악 단편 영화를 함께 작업하고, 바로크 시대의 원전 악기를 사용하여 로테르담 알렉산더 합창단(Het Alexander Kamerkoor Rotterdam)과 함께 헨델의 오라토리오 "알렉산더의 향연" <Alexander's Feast>을 재-작곡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에 왕립음악원에서 작품 "정중동" <Movement within Stillness>를 위촉하고 신입생을 위한 연설을 했으며, 헤이그시청에서 출판한 그의 명중곡 작품 <Around>는 종종 시내의 교회에서 연주되고 있다. 이렇게 대중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활동하는 손일훈은 유트레흐트 가우데아무스 뮤직페스티벌 Gaudeamus Muziekweek Utrecht, 할렘 국제 오르간 페스티벌 Haarlem International Organ Festival, 헤이그 다호인데브란딩 Dag in de Branding, 암스테르담 An Evening of Today, 프랑스오클레앙 국제피아노콩쿠르 Orléans Concours International 등 국제적인 현대음악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2017년에 결성한 앙상블 클럽M의 상주작곡가로서 <Mind-Map>, <Meditation> 등 매년 정기연주회에서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피아니스트 손일음과 함께 <Portrait>, <No, it's not Variation>을 선보이고, 더하우스콘서트에서 Lee String Trio와 함께 <Messengers>를, 바로크 앙상블 바흐 솔리스텐 서울과 함께 <Musical Offering>을 발표하고, 2021 강원도의 사계 <손일훈의 Questions>에서 작품 발표회를 하는 등 국내에서도 작품 활동 중이다.

그는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하는 창작곡 외에도 고전 음악을 편곡하여 때로는 작품에 충실하고 때로는 본인의 매력을 담아 공연에 참여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로서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기획자문을, 앙상블 뮤지스트, 2021 부평 문화재단 브런치 콘서트 등 공연장이나 프로젝트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즉흥 피아니스트로서 더하우스콘서트, 서울 프리뮤직페스티벌, 평창 대관령음악제, 암스테르담의 Oorsprong Curator Series, 유트레흐트 Gaudeamus Sessie와 헤이그 Rewire Festival 등의 실험적인 무대에서 음악가뿐만 아니라 무용수 그리고 시각예술가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PROFILE



박종해

피아노

JONGHAI PARK

Pianist

폭발적인 타건과 섬세한 감정 표현, 반전되는 매력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해는 2010년 퀸 엘리자베스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1년 이탈리아 에판사에서 수여하는 아르투로 베니데티 미켈란젤리 상, 2015년 노르웨이 트롬소 Top of the World 콩쿠르 2위, 2016년 클리블랜드 국제피아노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 스위스를 대표하는 명망 높은 콩쿠르,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강한 내면과 진심 어린 감성 표현을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연주자”라는 평가와 함께 2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금호아트홀의 ‘올해의 상주 음악가’로 선정되어 충만한 에너지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풀어내는 음악을 선보이며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며 2021년 5월 첼리스트 심준호의 앨범 발매에 참여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독보적인 상상력과 더불어 직관적으로 작품 전체를 꿰뚫어 보는 특유의 음악세계를 선보이는 피아니스트 박종해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박규민

바이올린

KYUMIN PARK

Violinist

박규민은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재학 중 도미, 도널드 와일러스타인을 사사하며 전액 장학생으로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한스아이슬러 음대에서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2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박규민은 이화경향콩쿠르 1위, 부산 음악콩쿠르 1위, 신한음악상 수상 등 국내콩쿠르를 석권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제콩쿠르 Thomas & Even Cooper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우승, 유서 깊은 Severance Hall에서 The Cleveland Orchestra와 협연하였다. 이후 Irving Klein International String Competition 3위, Harbin International Competition 2위 등 지속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고 2019년 베를린 Max Rostal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는 1위 없는 2위를 차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의 데뷔 무대를 가지면서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또한 2019년 NEC Concerto Competition에서 우승, Hugh Wolff의 지휘로 Elgar Concerto를 협연하였으며 같은 해 뉴욕 Young Artist Concert 오디션에서도 준우승하였다. 박규민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를 비롯 함부르크 카메라타, 센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필향, 부산시향, 성남시향,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신한음악상 수상자 독주회,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리사이틀, 금호악기 시리즈 등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가지는 한편, 크론베르그 아카데미, 라비니아 페스티벌, 올란드 뮤직 페스티벌 등 유명 페스티벌에 초대받아 연주하였다. 2019년 금호문화재단 악기은행의 수혜자로 선정된 박규민은 1740년산 도미니쿠스 몬타나나로 연주한다.



이경준

첼로

KYUNGJUN LEE

Cellist

최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클라이페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우승을 거머쥐며 본격적인 국제적 활동의 시작을 알린 첼리스트 이경준은 따뜻한 감수성과 진정성 있는 소리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승 이후 현재 다비드 게리 가스 국제 첼로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스페인 파블로 카잘스 재단이 수여한 특별상의 일환으로 ‘파블로 카잘스 박물관’ 초청연주와 음반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 불가리아 영 비르투오스 국제콩쿠르 1위, 칼 다비도프 국제 첼로 콩쿠르 2위 등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또한 노르웨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으로 성황리에 공연을 가졌으며, 노르웨이 전역에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었고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방영되며 주목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음악성으로 두각을 보인 그는 중앙음악콩쿠르, 대관령 국제 음악제 협연자 콩쿠르 등에서 우승 및 상위 입상하였으며, 창원시립교향악단 협연을 시작으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시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GMMFS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클라이페다 체임버 오케스트라, 노르웨이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노르웨이 Kirsten Flagstad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노르웨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협연을 통해 평단의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노르웨이 라디오 심포니 객원 수석을 역임하였으며, 금호 영 아티스트 독주회를 비롯하여 오슬로와 베를린에서 여러 차례의 독주회를 가졌다. 서울국제음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 경기 실내악축제, 부산클래식음악제, 이상근음악제,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라운지 등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현재 한국, 노르웨이, 독일에서 많은 솔로와 실내악 공연들에 활발히 활동 중인 그는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Troels Svane를 사사하며 마스터과정에 재학 중이다.



심규호

클라리넷

KYUHO SHIM

Clarinetist

클라리네티스트 심규호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후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Universität der Künste)에 입학해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찍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Capella Hall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던 그는 최용호와 신현각을 사사하고 CBS 음악 콩쿠르, 서울대 관악 콩쿠르, 이화경향콩쿠르 등에서 1위를 석권하였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대 관악 앙상블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디에텔름 쿤과 프랑소아벤다를 사사하며 International Clarinet Competition “Saverio Mercadante”와 Lisbon International Clarinet Competition에서 Semi-Finalist로, “AudiMozart!”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입상한 심규호는 쾰른과 프랑크푸르트에서 Philharmonie Südwestfalen과 협연하며 솔리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작품의 본질에 충실하며 깊이 있게 탐구하는 순수한 음악가’라는 평을 받은 그는 스위스 LAC에서 초청받아 독주회를 하고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음악 페스티벌과 Académie Musicale de Villecroze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뿐만 아니라, 도이치오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베를린,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등 유럽의 주요 무대에서 다양한 오케스트라 단체와 함께 연주한 그는 최근 부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객원 수석으로 초청되어 연주했다. 특히 실내악 연주를 즐기는 심규호는 베를린 필하모니 체임버홀과 멘델스존 하우스뿐만 아니라 더하우스콘서트, 쉐롱드무지끄, 부산 클래식 발전협의회 등 국내 무대에서도 관객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 또한, 앙상블 뮤지스트즈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토마스 린트호스트를 사사하고 있다.



최문규 MUNGYU CHOI 트럼펫 Trumpetist

트럼펫 연주자 최문규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뒤 동 대학원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일찍이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고,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서울대 관악 콩쿠르, 우현 음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하였으며 금호 영 체임버 아티스트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국내 다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활동을 하였으며 학사과정을 마친 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 입단하여 수많은 연주와 더불어 Brass&U Quintet의 멤버로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진 실내악 연주도 함께 하고 있다.



양현호 HYUNHO YANG 트럼펫 Trumpetist

트럼펫 연주자 양현호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학사를 거쳐 독일 뷔어츠부르크 국립음대 석사를 졸업하였다. 한양대학교 관악 실기 최우수자 연주회,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고등부 1위,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 콩쿠르 3위, Stegmann 콩쿠르 1위 입상을 입상하여 트럼펫 연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양대학교 관악정기연주회 협연, 뷔어츠부르크 테아터오케스트라 객원 연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전주시립교향악단 객원 수석 연주 등 왕성한 연주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는 인천시립교향악의 수석이자 Lumen brass와 Brass people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정태진 TAEJIN JUNG 트럼펫 Trumpetist

트럼펫 연주자 정태진은 선화예고, 서울대,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Leipzig 석사를 졸업하였다. 동아음악콩쿠르 입상, 해외파견콩쿠르 2위, 금호 영아티스트와 영체임버 오디션 합격, 2013년 제8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금관5중주 부문 1위없는 2위, 2015년 제4회 아트실비아 오디션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1년 Lindenbaum Festival Orchestra, 부천필,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원코리아오케스트라 수석을 맡았고, Leipzig 토마스교회 합창단, 금관앙상블 Brassanz와 아시아, 유럽 투어를 하였다. 현재는 Hochschule Musik und Theater in Leipzig Meisterklasse에 재학 중이며, Brass Arts Seoul 멤버이자 디토오케스트라와 원코리아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 중이다.



조규형 GYUHYUNG CHO 트럼펫 Trumpetist

트럼펫 연주자 조규형은 한양대학교 수석 입학 및 전액 장학생을 거쳐 Conservatorium van Amstredam 석사 졸업하였다. 전국대학심포니밴드 콩쿠르 금관부문 1위, 해외파견 콩쿠르 2위, 한양대학교 콩쿠르 1위 등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심포니, 성남시향, 대전시향, 전주시향, Netherlands Phillhamonic Orchestra 연수단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전시립교향악단 비상임 수석 트럼펫 연주자로서 활동 중이다.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11.4 목 7:30PM

안토니오 비발디

A. Vivaldi
1678-1741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단조 Op.3, No.10 RV 580

Concerto for 4 Violins in b minor, Op.3, No.10 RV 580

I. Allegro non molto

II. Largo

III. Allegro

Vn1.이원익 Vn2.유재원 Vn3.윤동환 Vn4.이무은

헨릭 고레츠키

H. Górecki
1923-2010

옛 형태의 세 개 소품

Three Pieces In Old Style for String Orchestra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F. J. Haydn
1732-1809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Hob.VIIb:1

Cello Concerto No.1 in C major, Hob.VIIb:1

I. Moderato

II. Adagio

III. Allegro molto

Vc.박노을

휴식 INTERMISSION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P. I. Tchaikovsky
1840-1893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Op.48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Op.48

I. Andante non troppo - Allegro moderato

II. Valse : Moderato

III. Elegia : Larghetto elegiaco

IV. Finale : Andante - Allegro con spirito

안토니오 비발디 |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단조 Op.3, No.10 RV 580

A. Vivaldi | Concerto for 4 Violins in b minor, Op.3, No.10 RV 580

비발디는 여러 가지 독주악기로 400곡 정도의 협주곡을 썼지만, 그 중 첼로 협주곡은 아주 적어서 몇 곡 밖에 남아 있지 않다. 1711년 비발디는 그간 원생들의 연습용 레퍼토리로 작곡했던 작품들 중에서 RV 549, RV 548, RV 310, RV 550, RV 519, RV 356, RV 567, RV 522, RV 230, RV 580, RV 565, RV 265 모두 12개를 선곡하여 “조화와 영감(L'estro Armonico)”이라는 제목의 바이올린 협주곡 집을 발간하였다. 영국의 음악 사학자 마이클 탈벗(Michael Talbot)은 ‘18세기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기악곡집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작품들은 헨델이나 바흐 같은 바로크 거장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바흐는 건반악기 연주를 위한 곡으로 편곡하기도 하였다. 비발디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RV 580 역시 그 중 하나이다.

헨릭 고레츠키 | 옛 형태의 세 개 소품

H. Górecki | Three Pieces in Old Style for String Orchestra

헨릭 고레츠키는 현대음악 작곡가로서 1933년 12월 6일 체르니카에서 출생하였다. 1958년 혼성합창과 기악 앙상블을 위한 ‘에피타피움 Epitaphium’을 발표하였고, 1959년 ‘교향곡 제1번 1959’, 1960년 ‘모놀로기 Monologhi’, ‘스콘트리 Scontri’, 1968년 ‘칸타타’ 등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63년 이후부터는 단순한 형식에 작곡 기법을 최소화한 작품을 썼는데, ‘칸티쿰 그라둠 Canticum graduum’(1969), ‘교향곡 제3번 슬픔의 노래’(1976)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레츠키가 남긴 걸작 중 하나인 이 곡은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다. 2009년 개봉한 영화 <Mr. Nobody>의 삽입곡으로 사용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영화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순수음악을 위해 작곡된 곡이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Hob.VIIb:1

F. J. Haydn | Cello Concerto No.1 in C major, Hob.VIIb:1

이 곡은 1765~1767년경에 작곡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이든이 에스테르하지 후작의 궁정에 신설된 궁정악단의 책임자로 고용되어 아이젠슈타트에 부임한 것이 1761년, 하이든이 29세 때였다. 하이든은 행사에 맞는 음악을 작곡해 악단을 연습시키고 공연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하이든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내가 갈 길은 분명하며, 나는 충분히 독창적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결국 에스테르하지 궁에서의 생활은 하이든에게 선택과 집중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이든은 1760년대 전반기에 연주자들의 뛰어난 연주 실력을 반영하는 작품을 썼다. 협주곡적인 색채를 띤 교향곡이나 몇 곡의 협주곡(바이올린 두 곡, 첼로 한 곡, 호른 한 곡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첼로 협주곡 한 곡, 플루트 협주곡 한 곡, 호른 협주곡 두 곡, 콘트라베이스 협주곡 한 곡의 악보는 안타깝게도 전해져 오고 있지 않다. 당시 에스테르하지 문고가 화재로 인해 소실됐기 때문이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제1번은 200년 가까이 귀족의 문서 창고나 도서관에서 동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1년 체코의 음악학자 플케르트가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하이든 당대의 필사 파트보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한 결과 진품 필사 악보로 판정됐다.

비록 세상에 공개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애호가들에 의해 가장 아름다운 첼로 협주곡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작품은 ‘캐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듣는 이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마치 첼로가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전혀 어렵게 다가오지 않으면서 연주하는 첼리스트의 앙상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난곡이기도 하다. 1962년 5월 19일 ‘프라하의 봄 음악제’에서 밀로슈 사들로의 첼로와 찰스 매커라스가 지휘하는 체코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이후 이 곡은 수많은 첼리스트들의 대표적인 협주곡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Op.48

P. I. Tchaikovsky |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Op.48

차이콥스키의 ‘모차르트 사랑’은 아주 유별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 있어서 모차르트는 바흐, 베토벤, 바그너, 브람스조차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였다. 그런 그의 모차르트를 향한 마음은 거의 종교적 숭배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모차르트는 너무나 천사와 같은 존재, 아이처럼 순수한 존재였다. 그의 음악에는 도달할 수 없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어서 예수처럼 숨 쉬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모차르트일 것이다. 모차르트 음악에서 음악적 아름다움이 도달할 수 있는 완벽함의 최정상 곡대기에 이르게 된다는 게 내 절대적인 확신이다. 누구도 모차르트만큼 나로 하여금 그토록 호느끼게 할 힘이 없으며 우리가 진심으로 이상향이라 부를 수 있는 바에 내 자신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항졸해서 몸을 멀게 할 힘조차 없게 된다.” 이 세레나데는 1880년 가을(9~10월)에 ‘1812년 서곡’(9~11월)과 나란히 작곡되었는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 차이콥스키는 서유럽의 음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당시 그는 자주 서유럽을 여행하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걸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음악들을 접했고, 특히 바로크 모음곡의 양식 및 고전파의 간결한 어법과 명쾌한 형식에서 많은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

사실 처음 이 곡을 착수할 때 차이콥스키는 교향곡이나 현악4중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그 중간 형태인 현악 협주곡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이처럼 고민했던 이유는 아마도 ‘독일적인 형식’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평생 동안 ‘형식’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세레나데’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좀 더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이 곡에서 차이콥스키는 이전에 발표했던 교향곡들보다 한층 더 탄탄한 유기성과 만족스러운 균형미를 달성했다. 즉 오직 현악에 의한 순수한 조직과 형식, 적절한 정돈과 균형을 통해서 드러난, 고전미에 대한 그의 진지한 추구가 여기서 하나의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와 관련 차이콥스키는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레나데는 내면적 충동에 따라 작곡했고, 자유로운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쓴 바 있다.

PROFILE



김민

음악감독

MIN KIM

Music Director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민은 솔로리스트이자 뛰어난 교육자, 그리고 통찰력 있는 리더십으로 단원들을 이끄는 음악감독으로서 다채로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뛰어난 음악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서울대 음대를 거쳐 함부르크 Staatliche Hochschule für Musik에서 졸업하고, 쾰른의 Brandis 교수와 Rostal 교수를 사사했다.

1979년 귀국 후 김민은 국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1981년에는 KBS교향악단 초대 악장을 역임(1981-1994)하였다. 또 그는 서울대 음대 학장(1999-2005)과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2003-2007), 서울국제음악제(SIMF) 예술감독(2011-2015)을 역임하였으며, 1980년에는 지금의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의 전신인 서울바로크합주단을 재창단하고 음악감독으로 취임하여 올해로써 41년째 단일 음악감독을 맡아 이끌고 있는 음악계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서 김민은 라인가우 페스티벌, 폴란드 바르샤바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 핀란드 난탈리 페스티벌(2회), 조지 에네스쿠 페스티벌, 뷔르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과 같은 주요 국제 페스티벌을 포함하여 700개 이상의 연주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 교육자로서 그는 쾰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2회), 비엔나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센다이 콩쿠르, 레오폴드-모차르트콩쿠르, 중국 국제 콩쿠르, 서울 국제 음악콩쿠르, 슈포아 국제 콩쿠르와 같은 세계 주요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았다.

국제 음악 교육 및 문화 교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민은 폴란드 정부로부터 '폴란드 문화훈장'과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A Life of Music' 증서와 메달을 수여받았고, 2015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관 문화훈장', 제10회 대원음악상 대상, 신산업경영원 '제31회 21세기 대상 기획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김민은 대한민국예술원 중신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과 윤이상 앙상블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한계 없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그려 나가고 있다.



박노을

첼리스트

NOLL PARK

Cellist

보자르 트리오의 피아니스트, 메나렘 프레슬러가 "음악을 아름답게 하는 어떤 종류의 음색이라도 첼로로 자유로이 표현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춘 연주자"라 격찬한 첼리스트 박노을은 서울예고, 서울대학교를 거쳐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비엔나 국립음대 솔리스트과정을 최고 점수로 마쳤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콩쿠르를 비롯하여 하이든 국제 콩쿠르 2위 및 청중상, 루토슬라브스키 국제 콩쿠르 3위, 폴란드 바르샤바 첼로 국제 콩쿠르 4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명예상 등 유럽의 주요 콩쿠르에서 화려하게 수상하며 탄탄한 실력을 갖춘 솔리스트로서의 역량을 다졌으며 음악에 대한 그의 폭넓은 관심은 관심은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등 다양한 분야를 향했고 그로 인해 쌓은 유럽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연주가로서의 음악적 배경을 넓히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故 로린 마젤이 이끌던 독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에서 아카데미 단원 및 객원단원으로 수년간 연주하였고 이어서 뮌헨 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보 첼리스트를 역임하며 런던 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부수석과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로 초청되기도 하였다. 마리스 안손스, 버나드 하이 톱크, 리카르도 무티, 세이지 오자와, 로린 마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지휘 아래에서 수년간 연주하였다.

뮌헨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여 현지의 호평을 받으며 활동하던 중 귀국하여,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전주시향, 수원시향, 울산시향, 원주시향 등과 협연하고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 베토벤 전곡 연주회 시리즈, 금호아트홀 초청 독주회, 교향악축제 협연, 수차례의 KBS음악실에서 실황 연주 등을 통해 뛰어난 연주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구 서울 바로크 합주단) 수석으로 코리안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단원, 라 메르 에 릴 단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강사, 성신여대 겸임교수, 서울중앙음악학원 전임교수로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에 출강하는 등 후학 양성과 연주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원식 WONSIK LEE 제1바이올린 1st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이원식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학사, 석사, 실내악석사, 전문연주자과정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우등 졸업하였다. 윤경희, 김민, 니콜라스 추마첸코, 울프 슈나이더, 엘리자베스 쿠퍼라트 교수를 사사하였고, 재독 시 빌레펠트 필하모닉과 데트몰트 챔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KCO, 카이로스앙상블 단원과 더 트리오, 콰르텟 원을 창단,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유재원 JAEWON RHYU 제2바이올린 2nd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유재원은 서울예고(전체 실기 수석 졸업), 서울대 음악대학,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KE 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하였다. 유럽을 무대로 수차례 독주회를 한 바 있으며 부천시향, 성남시향 외에도 수많은 교향악단과 협연하였다. 현대음악에도 애정을 보여 작곡가 최재혁의 난해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초연 및 녹음하였다. 그는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극찬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과천시립교향악단 악장, KCO 수석단원이며 한양대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다.



윤동환 DONGHWAN YOON 제3바이올린 3rd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은 선화예고 졸업 후,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그리고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점수로 졸업하였다. 귀국 후 음악저널 신인음악상을 수상하였고 삼성 라이징 스타 시리즈,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예술의전당 30주년 기념음악회, 서울국제음악제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악회로 청중과 만나왔으며 슬로모 민츠, 사라장, 밀리아 그린골츠, 아르토 노라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한 무대에서 호흡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현재 KCO 단원 및 연세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무은 MUEUN LEE 제4바이올린 4th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이무은은 한양대 4년 장학생으로 학사학위 후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Master과정을 졸업하였다. KCO, 국민일보 콩쿠르 등에서 입상, KCO, 과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을 하였으며,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객원단원과 강원시향, 과천시향 객원수석과 밀레니엄, 어니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악장을, 계원예고 강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현재 KCO, 코리아 아트빌리티 챔버 정단원, 충남대 강사로 재직 중이다.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KOREAN CHAMBER
ORCHESTRA**

1965년에 서울바로크합주단 명칭으로 창단된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KCO)는 올해로써 창단 56주년을 맞이한 명실 공히 국내 최고(最古)의 챔버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이어 나가고 있다. 1980년 현재 음악감독 김민의 취임과 함께 지금까지 폭넓은 레퍼토리 확장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챔버오케스트라로서 전 세계 주요 페스티벌에 초청받으며 현재까지 국내외 연주 기록 707회(해외 초청연주 139회)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KCO는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현재까지 총 17장의 CD를 발매하며 레코딩의 수준 향상을 끌어올렸다. 또한, 1999년 파리 유네스코회관, 2000년 뉴욕 UN본부에서의 열린 공연을 통해 'UN 공식 평화의 실내악단'으로 지정받았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단법인 예술단체, 2020년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2020년 롯데콘서트홀 상주 연주 단체로 지정받으며 클래식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세계 주요 페스티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챔버오케스트라로 139회라는 국내 최다 해외 투어 기록을 보유한 KCO는 라인가우 페스티벌(2007년), 에네스쿠 페스티벌(2011년), 핀란드 난탈리 페스티벌(2007년, 2019년), 폴란드 바르샤바 베토벤 이스터 페스티벌(2006년, 2015년), 이태리 아스콜리피체노 페스티벌과 칼 오르프 페스티벌(2011년), 마카오 국제 페스티벌(2014년), 중국 베이징 NCPA May 페스티벌(2015년), 에스토니아 국제 모차르트 페스티벌(2006년), 룩셈부르크 에히터나흐 페스티벌(2007년), 오스트리아 쇼팽 페스티벌(2016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실내악 페스티벌(2016년), 독일 Eckelshausener Musiktage(2019년), 독일 크론펠크 아카데미 페스티벌(2019년) 외 다수의 주요 국제 페스티벌 초청을 받아 연주하였다. 또 2015년에는 창단 50주년 기념하여 월드투어 프로젝트(런던 퀸 엘리자베스홀,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콘서트홀, 비엔나 페라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아시아 최정상급 챔버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오는 2022년 KCO는 독일 모차르트 페스티벌 뷔르츠부르크, 스위스 시옹 페스티벌, 독일 하이델베르크 봄의 축제에 공식 초청받았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연기된 국내 최초 <모차르트 46 교향곡 전곡 연주 프로젝트>를 재개한다.

PROGRAM

바리톤 이용광 X 소리꾼 박수범 11.5 금 7:30PM

슈베르트, 그의 그림자

봄 Spring | 시작 Beginning

판소리 Pansori	<춘향가> 중 '사랑가' 'Sarangga' of <Chunhyangga>
슈베르트 F. Schubert	음악에게 An die Musik
	도플갱어 Der Doppelgänger
	세레나데 Ständchen

여름 Summer | 패기, 열정, 꿈 Spirit, Passion, Dream

판소리 Pansori	<심청가> 중 '천리 시내는' 'Choenrisinaenun' of <Simcheongga>
슈베르트 F. Schubert	송어 Die Forelle
	밤과 꿈 Nacht und Träume

가을 Autumn | 죽음의 임박 About to Die

판소리 Pansori	사철가 Sacheolga
슈베르트 F. Schubert	마왕 Erbkönig

겨울 Winter | 죽음, 진혼 Death, Repose of Souls

슈베르트 F. Schubert	모든 영혼의 안식을 위한 연도문 Litanei
판소리 Pansori	<심청가> 중 '상여소리' 'Sangyeosori' of <Simcheongga>
슈베르트 F. Schubert	아베마리아 Ave Maria

PROGRAM NOTE

봄 Spring | 시작 Beginning

음악과 사랑에 빠진 슈베르트의 마음은 시작의 설렘이 묻어나는 봄을 닮았다. 음악이 자신의 분신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의 고백이 세레나데로 울려 퍼진다.

여름 Summer | 패기, 열정, 꿈 Spirit, Passion, Dream

스무 살에 바리톤 미하엘 포글을 만난 슈베르트는 작곡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그 기세는 천리 시내의 우렁찬 물줄기처럼 시원하고 송어처럼 활기차지만 동시에 젊음이 주는 다양한 유혹은 그를 병들게 만든다. 젊음과 질병, 낮과 밤, 밤과 꿈, 두 개의 상반된 영혼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가을 Autumn | 죽음의 임박 About to Die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기 시작하는 슈베르트의 모습을 낙엽을 닮았다. 붉고 노랗게 물드는 그 모습은 아름답지만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의 인생에 죽음의 사신, 마왕이 손을 내밀기 시작한다.

겨울 Winter | 죽음, 진혼 Death, Repose of Souls

겨울이 깊어가는 1월에 태어난 슈베르트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나그네가 되어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31년의 짧은 생애 동안 뜨겁게 음악을 사랑하고 겨울 나그네로 돌아간 그를 위한 진혼과 기도의 노래가 펼쳐진다.

그림자는 자신의 형상을 투영한다. 예술가에게 분신이자 도플갱어, 그림자는 무엇일까. 이 공연은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1797.01.31~1828.11.19)의 도플갱어이자 그림자는 다름 아닌 '음악'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시작된다. 그림자는 작곡가의 흔이 녹아있는 또 하나의 자아이며 그 안에는 열정, 행복, 기쁨, 희망도 담겨있지만 우울, 질병, 고뇌, 죽음이 담겨 있다. <슈베르트, 그의 그림자>는 그의 아름다운 가곡에 그의 두 가지 본성, 질병과의 싸움, 친구들과 슈베르티아데, 우울증과 창조성, 성공과 병중, 최후의 투병 그리고 죽음과 장례까지, 삶의 모든 것이 녹아있음을 표현한다.

시작의 설렘이 있는 봄, 송어처럼 활기찬 움직임이 펼쳐지는 여름, 서서히 낙엽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그리고 차가운 겨울. <슈베르트, 그의 그림자>는 한 인간으로서, 작곡가로서 슈베르트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여 그의 삶과 음악적 과업이 날들과 씨름로 엮어 진행된다. 특히 슈베르트의 가곡을 즐겨 부르고 널리 알려진 그의 동료이자 후원자인 바리톤 미하엘 포글(1768~1840)을 21세기에 살고 있는 바리톤 이용광에게 투영시키고, 그들의 바라보는 한국의 소리꾼 박수범을 세워, 슈베르트와 이용광, 박수범, 3자 구도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를 통해 동서양이라는 공간, 슈베르트가 살았던 18~19세기와 이용광과 박수범이 살고 있는 21세기라는 시간, 음악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음을 피력한다. 여기에 피아니스트 이소영의 연주와 반주가 더해져 슈베르트가 남기고 간 그의 분신이자 그림자를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바리톤 이용광은 슈베르트의 가곡의 가사 중 일부를 오리지널 독일어 대사로 읊고 소리꾼 박수범은 아니리와 대사로 슈베르트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클래식과 국악이라는 영역이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이며 슈베르트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예술적 도전의 장이 될 것이다.

질병과 싸우며 마왕의 부름을 받고 겨울 나그네로 사라진 슈베르트. <슈베르트, 그의 그림자>의 엔딩은 그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용광과 박수범의 진혼의 노래로 마무리 짓는다. 10주년을 맞은 IBK챔버홀은 슈베르트를 위한 진혼제가 올라간 무대이자 '음악은 이곳에 소중한 보물을 묻었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희망 역시 묻었다'는 그의 묘비명에 적힌 글귀처럼 보물이자 희망인 슈베르트의 음악에 한껏 취한 공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글 이단배 구성 및 대본작가

PROFILE



이응광

바리톤

EUNGKWANG LEE

Baritone

유럽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이응광은 특유의 서정적인 보이스와 섬세한 테크닉으로 관중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성악가이다. 이응광은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졸업 후 동 대학원 재학 시절이던 2004년 한국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하였고, 2005년 동아국제콩쿠르 준우승을 통해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으며 2005년 도독,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디플롬과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으며 김성길, 연광철, 박홍우, 강중영, Anneliese Fried, Stoyan Popov, Maurizio Barbacini 교수를 사사하였다.

2006년 독일 알렉산더 지라르디 국제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2008년 이태리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 콩쿠르 1위 및 3개의 특별상 수상, 2010년 스위스 에른스트헤플리거 국제 콩쿠르에서 1위에 오르며 연이은 수상 행진으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페루초탈리아비니 국제콩쿠르, 힐데자데 국제콩쿠르, 이태리 스피로스아르기리스 국제콩쿠르, 알프레도 자코모티 국제콩쿠르, 그리스 마리아 칼라스 국제콩쿠르, 스페인 비냐스 국제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터키 레이라 겐서 국제콩쿠르, 네덜란드 IVC 국제콩쿠르, 서울국제성악콩쿠르 등 수많은 국제성악콩쿠르의 입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07년 국립오페라단의 <라 보엠>에서 마르첼로 역으로 국내에서 데뷔하였고 이듬해 Opernwelt에서 선정된 올해의 오페라하우스상을 2년(2009년, 2010년) 연속 수상한 스위스 바젤 오페라극장에 전속가수로 캐스팅되어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에 데뷔하였다. 이후 이태리 리바 델 가르다 음악페스티벌에서 타이틀 롤인 리골레토를 시작으로 바젤 오페라극장, 스위스 베른 시립극장, 독일 자브리켄 국립극장, 일본 나고야 오페라극장, 토야마 오페라극장 등에서 피가로(피가로의 결혼), 오네긴(에프게니 오네긴), 파파게노(마술피리) 역 등 주역으로서 바르차치니마 우리치오, 가브리엘 펠츠, 엔리코 데람보에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파리 샹젤리제 극장, 콩피예뉴 임페리얼 극장 등의 콘서트 무대에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최근에는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로 스위스 바젤 극장에서 독창회를 가졌고, 동일 프로그램으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독창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8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귀향>의 올리시스 타이틀 롤을 맡았고,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돈 카를로>에서 연광철과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10월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바리톤 김성길과의 가곡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9년 1월에는 <귀향>의 올리시스 타이틀 롤을 통해 베를린 무대에 올랐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2021시즌 스위스 루체른 극장에서 <세비야의 이발사> 타이틀 롤을 맡아 현지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며, 현재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수범 SOO BEOM PARK 소리꾼 Traditional Singer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사 (판소리 전공)
제28회 동아국악콩쿠르 판소리 학생부 금상 (2012년)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 수상 (2013년)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 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2016년)
제28회 KBS 국악대경연 성악 부문 차상 (2018년)
다큐멘터리 영화 <소리 아이> 주연 (2008년)
박봉술제 적벽가 <박수범 완창발표회> (2013년)
국립국악원 작은 창극 <그네를 탄 춘향> 이몽룡 역 (2017년)
정동극장 기획공연 판소리 뮤지컬 <적벽> 도창 역 (2019년)
전) 밴드 '이날치' 멤버

이소영 SOYOUNG LEE 피아노 Pianist

스위스 루체른대학교 음악대학 실내악 리트반주 전공, Roger Vignoles 마스터클래스 참가
스위스 국제성악콩쿠르, 관악콩쿠르 반주자 활동, 바젤 오페라극장, 바젤 윈스터성당, 루체른KKL 등 각종 독주회, 앙상블 연주
스위스 루체른 바젤, 취리히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호흡
한국 스위스 문화협회에 초청 연주, KBS 더콘서트 출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롯데 콘서트홀 등에서 각종 독창회와 독주회 반주, 음반 녹음 반주 등 전문 연주자로 활동



PRODUCTION-STAFF

이단비 DANBI LEE 구성 및 대본 작가 Script-writer

현) 한국방송작가협회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경제TV 산업부 작가,
한국춤비평가협회 <춤웹진> 필진
전) MBC 시사교양국 <문화사색> 작가, YTN 보도제작국 작가, SBS 보도제작국 작가

주요 참여 작품

국립현대무용단 <2021 춤추는 강의실>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 <2021 무용인 한마음축제 in 제주, 성남>
창작 컨템퍼러리 발레 <ALONSO(알론소)>
MODAFE 2021 <모다페 뮤지엄-레전드 스테이지>
성남아트센터 <발레 스타즈 Ballet Stars>
세계유산축전 : 경북 와이즈발레단 <선묘>
대전예술의전당 인문학콘서트 <내 인생의 파드되-황혜민&엄재용> 토크 구성-진행
제2회 발레 메이트 페스티벌 토크 구성-진행

편곡 다 음 제작 봄아트프로젝트

예술의전당 후원회 제13기 임원진

회장	서봉기
고문	김영수 김영훈 박인규 박영우 최윤홍
부회장	김복철 신영애 우원석 현석규
감사	박재일 정문기
이사	김신영 김용현 구자은 권기순 김성태 김희실 김희규 김홍준 김철우 문규영 박정우 박용국 서연희 서인규 신동원 장우희 배우희 조국희 이병민 이복훈 이재훈 이원희 최영미 최정현
자문위원	박희규 최 정

예술의전당 후원회

회장	서봉기
부회장	김복철 신영애 우원석 현석규
감사	박재일 정문기
이사	김신영 김용현 구자은 권기순 김성태 김희실 김희규 김홍준 김철우 문규영 박정우 박용국 서연희 서인규 신동원 장우희 배우희 조국희 이병민 이복훈 이재훈 이원희 최영미 최정현
자문위원	박희규 최 정

회장	서봉기
부회장	김복철 신영애 우원석 현석규
감사	박재일 정문기
이사	김신영 김용현 구자은 권기순 김성태 김희실 김희규 김홍준 김철우 문규영 박정우 박용국 서연희 서인규 신동원 장우희 배우희 조국희 이병민 이복훈 이재훈 이원희 최영미 최정현
자문위원	박희규 최 정

회장	서봉기
부회장	김복철 신영애 우원석 현석규
감사	박재일 정문기
이사	김신영 김용현 구자은 권기순 김성태 김희실 김희규 김홍준 김철우 문규영 박정우 박용국 서연희 서인규 신동원 장우희 배우희 조국희 이병민 이복훈 이재훈 이원희 최영미 최정현
자문위원	박희규 최 정

회장	서봉기
부회장	김복철 신영애 우원석 현석규
감사	박재일 정문기
이사	김신영 김용현 구자은 권기순 김성태 김희실 김희규 김홍준 김철우 문규영 박정우 박용국 서연희 서인규 신동원 장우희 배우희 조국희 이병민 이복훈 이재훈 이원희 최영미 최정현
자문위원	박희규 최 정

회장	서봉기
부회장	김복철 신영애 우원석 현석규
감사	박재일 정문기
이사	김신영 김용현 구자은 권기순 김성태 김희실 김희규 김홍준 김철우 문규영 박정우 박용국 서연희 서인규 신동원 장우희 배우희 조국희 이병민 이복훈 이재훈 이원희 최영미 최정현
자문위원	박희규 최 정

회장	서봉기
부회장	김복철 신영애 우원석 현석규
감사	박재일 정문기
이사	김신영 김용현 구자은 권기순 김성태 김희실 김희규 김홍준 김철우 문규영 박정우 박용국 서연희 서인규 신동원 장우희 배우희 조국희 이병민 이복훈 이재훈 이원희 최영미 최정현
자문위원	박희규 최 정

회장	서봉기
부회장	김복철 신영애 우원석 현석규
감사	박재일 정문기
이사	김신영 김용현 구자은 권기순 김성태 김희실 김희규 김홍준 김철우 문규영 박정우 박용국 서연희 서인규 신동원 장우희 배우희 조국희 이병민 이복훈 이재훈 이원희 최영미 최정현
자문위원	박희규 최 정

회장	서봉기
부회장	김복철 신영애 우원석 현석규
감사	박재일 정문기
이사	김신영 김용현 구자은 권기순 김성태 김희실 김희규 김홍준 김철우 문규영 박정우 박용국 서연희 서인규 신동원 장우희 배우희 조국희 이병민 이복훈 이재훈 이원희 최영미 최정현
자문위원	박희규 최 정

* 2024년 12월 20일 기준
 ※ 후원회원 명단은 후원금 내역 순이며, 동일한 경우 가나다순입니다.
 ※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이메일 발송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모체극장 지정권을 위해 후원회원들을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건재)이병영 이상봉 김태우 김태호 박인규 이흥규 김성희 박성원 박정우 윤지숙
 정재호 Verica Morikita 진효희 김희철 권오준 배태현 이재식 최광호 서규지 이원희
 김경수 곽영희 박순옥

예술의전당



시장 유인택 예술본부장 송성환 경영본부장 윤동진 문화본부장 김미희

음악사업부장 김재연 기획·제작 남유리

음악사업부 배민경 김경민 박은정 김희선 신선화 양성필 이재현

공연사업부장 양우제 하우스에너지 최원해

무대운영부장 윤대성 무대감독 강필준 조병 김지상 음향 김결

편집디자인 2x2(두바이두) 사진 이우성